

돋보기로 보는 부처님 세상

나주 다보사, 지역노인 560명에 안경 보시·경로잔치

나주를 대표하는 천년고찰 다보사(주지 청암)가 지역 노인들에게 광명을 선포했다. 나주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560여 명에게 돋보기 안경을 맞춰주었기 때문이다.

이번 행사는 10월 16일 나주 남산 시민회관에서 경로잔치와 함께 열렸다. 행사에 앞서 주지 청암 스님은 인사에서

“평생 나보다 남을 위해 살아온 어르신들의 마음이 곧 부처님 마음이다”며 “좀더 밝은 세상을 보면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기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날 다보사가 준비한 돋보기는 560여 개. 청암 스님이 몇 년간 한푼 두푼 모아 마련한 것이다. 행사장에는 예상을 뛰어넘어 700여명의 노인이 참석했다. 청암 스님은

돋보기를 받지 못한 노인들에게 “지역 당사무소를 통해 추후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쓰던 돋보기의 두수가 맞지 않아 불편했다”던 정정숙 할머니(69·나주 송월동)는 “스님이 주신 새 안경을 받고 보니 심봉사가 눈을 뜨듯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안경을 보시한 청암 스님은 몸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 스님은 몸이 불편한 가운데도 포교에 있어서는 한 치도 물러섬이 없다.

지난 3월 다보사 주지로 부임한 이래 불교양양대학을 개설하고, 평양민속예술단 초청공연, 부처님 전 고향양 울리기 등 다양한 불교문화행사를 시연했다.

이러한 스님의 정성에 감복해 안경 전문가 조광현(안경랜드 2대 대표) 씨도 ‘돋보기 맞춰주기 행사’에 자원봉사를 자처했다. 다보사 신도들도 각종 음식을 마련해 참가 노인들을 접대했다.

한편 다보사는 10월 30일(음력 9월 9일) 대웅전에서 부처님 전에 꽃을 공양하는 불교전통의식을 봉행한다.

글·사진=이준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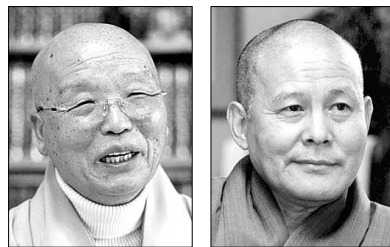
나주 다보사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안경 560개를 맞춰 선물하는 등 지역민을 위한 포교에 진력하고 있다. 사진은 10월 16일 열린 경로잔치.

송광사 금강산림대법회 연다

11월 8일 입제...보성·지관 스님 등 설법

조계종립 송광사(주지 영조)는 11월 8일부터 12월 27일까지 8회에 걸쳐 ‘금강산림대법회’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이번 법회는 매주 수요일 사자루에서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을 비롯해 부산 여여선원장 정여, 송광사 회주 법흥, 서울 도선사 주지 혜자, 문수암 주지 월파, 쌍계사 강주 통광, 관음



보성 스님 지관 스님

사 주지 지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차례로 <금강경>을 설한다.

또한 송광사는 금강산림대법회가 열리는 49일 동안 매일 영가전도 기도를 봉행한다. (061)755-0108 이준엽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충남동부지구 : (010)3069-3170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전북지역 5개 불교대학 체육대회 열리고 화합 다져

전북지역 5개 불교대학 체육대회 열리고 화합 다져

전북지역 5개 불교대학 학인들이 운동을 통해 단합과 지역포교를 다졌다.

전북, 화엄, 무주, 남원, 익산 불교대학 등 5개 대학은 14일 전주공공체육관에서 제(6회) 연합체육대회를 개최했다(사자).

각 대학 동문과 재학생 10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체육대회에서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불교대학 학인은 곧 지성불교를 대표하는 불자이다”며 “운동을 통해 서로 화목하고 지역불교를 이끌어 가는 주역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체육대회에서 탁구, 배구, 줄다리기에서 우수한 무주불교대학이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이준엽 기자

자비정신으로 성장한 호남 명문사학

건학 60주년 맞아 정광 중·고등학교

광복 이듬해인 1946년 백양사, 송광사, 화엄사, 대흥사, 선암사 등 호남지역 5대 본사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정광학원(이사장 천은 스님)이 건학 60주년을 맞았다.

지난 10월 14일 정광고등학교 불비관에서 열린 ‘개교 60주년 기념식’에서 이사장 천은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정광학원의 출발은 만암 대종사의 원력으로 지역 사암과 불자가 뜻을 모아 출발했다”며 “건학이념인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좇아 더욱 정진하자”고 강조했다.

정광중학교 강준식 교장과 고등학교 정영인 교장도 인사말을 통해 “60년 전통을 살리고, 급변하는 사회에 적극 대처해 명문중의 명문사학으로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정광학원은 조계종 종정 만암 스님이 교육불사를 제안하고 호남지역 5대 본사가 적극 참여해 설립했다. 당시 호남의 각 사암과 불자들의 참여로 16만 8876명의 대지를 확보하고, 1946년 3월 10일 목포 정광사에서 3년제 중학교로 첫 출발했다.

그후 정광학원은 1948년 광주로 학사를 이전하고 1951년 10월 10일 정광고등학교를 개교했다. 정광학원은 1987년 현 학



10월 14일 정광고 불비관에서 열린 개교 60주년 기념식 모습.

사가 자리한 광주 송정동으로 이전하면서 급성장해 호남의 명문 사학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동안 정광중학교는 59회에 걸쳐 1만 2869명의 졸업생을 냈고, 고등학교는 54회에 걸쳐 1만 941명을 배출했다.

또한 정광고는 금년초 박나영 양이 광주에서 최초로 골든벨을 울려 화제가 됐다.

interview 정광학원 이사장 천은 스님

“본사 주지 뜻 모아 제2건학”

“해방 당시 혼란기에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만암 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은 부처님과 같은 일투 마음씨를 가져야 국민이 살고 나라가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뜻이 모여져 정광학원이 설립됐고,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들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데 힘써왔습니다”

10월 14일 개교 60주년을 맞아 기념축제를 주관한 정광학원 9대 이사장 천은 스님(대흥사 조실·사진)은 “같은 지역에 자리한 교구 본사가 모두 참여해 불교 중립학교를 설립한 것



은 정광학원이 유일하다”고 소개했다.

천은 스님은 “초창기 5대 본사가 힘을 모았던 뜻을 살려 각 본사 주지스님을 학교 이사로 참여토록 하고 있다”며 “60주년을 맞아 제2건학으로 지역뿐 아니라 세계로 나가는 교육도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한 “물질만능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사회문제에는 부처님의 중도사상이 대안이다”며 “불교 중립학교로서 부족한 없는 교육으로, 정광인들이 사회와 나라를 이끄는 동량이 되도록 교직원과 함께 힘써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준엽 기자



심향사, 장조 스님 부도 제막

봉하당 장조 스님 부도 제막식이 10월 18일 나주 심향사 부도전에서 봉행됐다(사자).

제막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천은, 백양사 주지 두백, 마하보리사 회주 성오 스

님 등 문도 스님과 신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장조 스님은 16세에 백양사 운문암에서 호명 스님을 은사로 출가, 문도들의 추대로 28년간 백양사 주지를 역임하며 백양사를 중흥시켰다. 이준엽 기자

대전에 불교 상설전시관 오븐

대전에 부처님 성상과 불교 관련 조각품을 상설 전시하는 공간이 생겼다.

대전 여진미술관(관장 이진형)은 개관 1주년을 맞아 불교기념관을 건립, 10월 14일 초전법륜상 점안법회를 열었다. 하동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을 증명으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했다. 불교 이진형 관장은 여진미술관과 불교

기념관을 대전지역을 대표하는 불교문화 산실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042)934-8466

해철 대전 총북 지사장

성곡사, 십일면관음보살 점안식

공주 성곡사(주지 관묵)는 10월 13일 십일면관세음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법주사 회주 혜정 스님과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고불산 자락에 위치한 성곡사는 30년전 천막을 치고 개원한 이래 30년간 불사를 진행해 천불 참회기도장으로 거듭났다. 주지 관묵 스님은 2008년 불사회장을 발원하고 30년째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 해철 대전 총북 지사장

팔공산 은해사 제1197돌 개산대재

미타도량 은해사는 서기 809년 신라 헌덕왕 원년에 해철국사(惠哲國師)께서 창건하셨으며, 한국불교의 새벽을 여신 원효(元曉)스님, 우리 문자의 기틀을 마련하신 설총선생, 민족의 자족, 자존, 자주역사를 최초로 선양한 삼국유사를 지으신 일연선사(一然禪師) 등 삼성현의 정신이 깃든 역사적 도량입니다. 아미타부처님이 상주하는 은해사가 온 국민의 정신적 귀의처요, 정혜결사 도량으로서 개산한 지 1197년의 성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산의 역사와 전통을 오늘에 되새겨 불국정토구현에 배전의 노력을 다짐하면서 개산대재 만등불사 그리고 지장보살 봉안식을 봉행하오니 많은 동참 있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0년 10월

은해사 수립장 안내

수립장은 사람과 나무가 상생하여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회귀하는 인연을 근거로 화장을 하고 유골분을 지정된 나무아래에 봉안하는 가장 환경 친화적 장례문화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본사가 시행함으로써 선진 장례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민족과 친근하고 정수를 의미하는 소나무와 참나무를 효행목으로 지정하여 가족들이 애정으로 보살피고 가꾸어 고인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는 편리함이 더한 자연 환경 친화적 선진 장례문화이다.

www.surimjang.co.kr 전화상담 : 054)335-0566

개산대재 만등불사 대법회 안내

- 2006년10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개산조 해철국사와 역대조사 차례제 - 부도전
- 2006년10월29일 (일요일)
오전 10시 헌공 및 사시예불 지장보살 봉안식
정오 점심공양
오후 1시 개산대재 법요식
오후 2시 산사음악회 = 국악공연
오후 5시 저녁공양
오후 6시 저녁예불
오후 6시 30분 만등불사 점등식
- 동참금 : 만등불사 - 1인 1등 1만원
지장보살 동참자 복참비 - 1만원

은해사 (054)335-3318-9, FAX (054)335-0293
명불합 (02)741-9345
은해사 교구 각 말사

* 은해사에서는 특별법회 및 정기법회(매월 음력 3일, 18일) 동대구 → 반야월 → 하양지역으로 버스 운행합니다.
* 행사전날 철야기도하실분 미리 원주실로 연락 바랍니다

제10교구본사 팔공산 은해사 주지 중 화 법 타 합 장